

가정생활 정보화 콘텐츠 구성과 전문 직업 개발을 위한 연구*

: 생활과학 전공자의 정보화 요구 실태분석을 통하여

Research on the Contents Construction for the Information-oriented Family Life and Development of Professional Occupations

: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of Information Needs among the Human Ecology Majors

송호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윤 소 영**

Dept. of Preschool Education, Songho College

Instructor : Yoon, So-Young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serving two purposes. The first is to analyze the real condition and demand of profession development from the human ecology majors. The second is to develop necessary methods in which ordinary people can collect necessary information about family life. Relat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147 the human ecology majors, and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several web sites providing with information related to family life. Web sites such as "www.yahoo.com" and "www.naver.com"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about whether the students majoring in the human ecology were familiar with the information-related terms or futuristics-related books, and whether they have ever taken the related courses in college.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nalysis shows that the present level of the human ecology majors' information orientation and networking experiences is extremely low. Second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whether they have optimistic or pessimistic attitude toward the contemporary informatized society, the human ecology majors have rather optimistic attitude in group while having pessimistic one individually. As to their response to the question about whether informatized society is connected with industrial society or not, the human ecology majors are divided in nearly equal ratio. Thirdly, analysis of the human ecology majors' understanding of profession relevant to their major indicates that they have high level of perception and information about the professions of fashion designing, traditional garment designing, nutrition counselling or consumer counselling. On the other hand, they are not familiar with the information about professions such as professional QR programming, eating habit-related information business and family welfare. Lastly, level of web sites supplying information about family life is fragmentary. Especially, probe into the directories providing with necessary information of family life subdivided into special areal of life shows that they lack systematic organization making more convenient consumer use.

▲ 주요어(Key words) : 정보화사회(Informatized Society), 가정생활정보(information about family life), 생활과학(Human Ecology), 전공관련직업(profession relevant to their major)

I. 문제제기

정보사회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정보사회가 정보통신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자아낸 변화의 산물(김경동, 1999)로 이해하며, 이러한 사회변동이 사회의 하부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정보기술과 사회구조의 관계를 이해하는 입장은 정보사회와 산업사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따라 다른 쟁점을 부각시킨다. 즉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보사회는

* 본 연구는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윤소영(E-mail : soyoun@songho.ac.kr)

산업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변혁으로 이해되거나 또는 그 변화가 새로운 시대 규정이 필요할 정도로 포괄적인 것은 아니라는 연속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한편, 정보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노동, 가족규범, 인간관계, 소비생활 등의 각 영역에서 편리함과 유익함을 제공하는 점을 중시하는 낙관적인 전망과 반대로 생활양식의 모든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는 거시적인 사회 체계 변화가 미시적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최근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정보화 및 정보사회의 사회적 변화과정이 가정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생활과학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가정정보화 실태 분석을 통해 정보화의 영향력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한국정보문화센터, 1994; 조정문, 1997; 함인희, 2000)가 진행되었으며, 1990년 후반부터 미래학적 관점에서 가족이 가정생활에서 직면하게 될 새로운 변화와 다양한 다양성을 조망하는 연구(안병철, 1997; 조은, 1999; 최동수, 2002)나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학문적 모형으로서 생활과학의 위상에 대한 연구(유영주, 강완숙, 1996; 김난도, 1998; 허형, 1998; 김기욱, 1999)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생활과학으로서 가정학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생활과학이 가정의 역할과 가족의 개념정립을 근간으로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지향점이 기존의 생활과학이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내에서 새롭고 점증적인 경향을 성립시켜 나가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생활과학의 새로운 변화 방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첫째,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정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가정생활의 정보화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즉 가정생활의 변화를 직시하고, 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정중심의 미래 사회의 복지적 삶을 제안하는 것이다. 둘째, 학문의 적용성과 실용성에 근간을 두어 정보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이를 생활과학의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경제는 정보화 관련 산업군인 전자정보기술의 등장이나 발전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정보산업은 정보의 창조, 수집, 축적, 분석, 가공, 표현, 전달 등을 전제로 하며, 이는 사회의 각 해당분야에서 나름대로의 관련 직업군과 기존 직업군을 다종다양한 형태로 변형 또는 퇴출/탄생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사회라는 사회체계내에서 생활과학의 변화는 가정환경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즉 가정환경의 기술체거나 정보력의 발전은 이를 다루는 생활과학의 학문적 내용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현재 가정의 정보지원환경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어,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60.1%로 10가구 중 6가구가 컴퓨터

를 가지고 있고(머니투데이 2002. 7. 11), 컴퓨터 보급률과 함께 컴퓨터 사용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6세 이상 인구 중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63%으로 컴퓨터 사용 가능자 중 94.4%가 인터넷을 할 줄 알며,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들 가운데 40대 이상의 남녀는 '정보검색'을 위한 목적이 가장 많다(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3). 그러나 이러한 빠른 정보지원환경과 정보검색의 사용목적에 부응할 정도의 소프트웨어 환경, 즉 콘텐츠의 성장은 지체되고 있다. 즉 가정생활에 대해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가정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몇몇 디지털 관련 사이트들도 대개 교양 지식이나 기술적 정보제공 및 국부적 관심영역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가정들은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마땅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수행된다. 첫째, 생활과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화실태 및 직업개발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생활과학 전공자의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직업군을 발굴하는 것이다. 둘째, 생활과학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가족원들이 가정생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생활과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직업개발을 위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정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분석하여 가정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 콘텐츠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생활과학으로서 가정학이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체계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방향을 생활과학 전공자의 새로운 직업군 개발과 가정생활 정보화 콘텐츠 구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정보사회에서 생활과학의 새로운 방향

1.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

정보사회의 새로운 가정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된다. 하나는 정보화가 미칠 생활양식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낙관적 전망을 취할 것인가, 혹은 정보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역기능을 염두에 둔 비판적 전망을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사회의 도래를 사회발전의 새로운 단계로서 파악하는 단절적 입장에서 설 것인가, 또는 지금까지 발전되어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또는 근대성의 연장선상에서 산업사회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하는 연속론의 입장에서 설 것인가(Webster, 1997; 김원동, 1999) 하는 점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미래학자들의 전망에 의하면 정보화가 진전된 미래사회는 전통적인 산업사회가 가졌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진보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존 나이스비트(Naisbit, 1998)가 말한 '위계적인 피라미드 조직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화해 갈 것'이라는 예측과, '탈대중화, 분

산화, 분권화, 소규모화의 방향으로 사회가 진보해 나갈 것'이라는 엘빈 토플러(Toffler, 1982)의 전망이 낙관론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오웰의 "1984"나 헉슬리의 "놀라운 신세계"와 같은 문학작품에서 그려진 미래사회는 반드시 장미빛은 아니다. 정보를 가진 개인이나 국가와 가지지 못한 개인이나 국가간의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과 같은 정보화에 따른 부정적 측면들은 지금도 겪게되는 문제들로 손꼽힌다.

지금까지 사회의 "기본단위"로, 그리고 사회의 "거대한 충격 흡수장치"로 불리던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낙관적인 견해와 비판적인 견해가 동시에 공존한다. 정보화는 전자주택이나 전자대가족의 개념을 낳고, 이는 물리적 거리가 먼 가족간의 심리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가정이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 즉 사무실에서의 기능을 갖게되고 가사일의 자동화로 인해 여성의 생활 및 노동형태가 변화될 것이며, 새로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성으로 긍정적인 가족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낙관론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계변혁"의 저자인 Lundberg는 '가족이 완전히 소멸하기 직전에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신분석학자 Wolf는 '가정은 어린 아이를 기르는 1-2년을 제외하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것이 가정의 유일한 기능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Webster, 1997). 더욱이 가족에 타격을 입힐 가장 파괴적인 요인은 새로운 출산기술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기시장' 또는 '생물학적 부모와 직업적 부모'에서 '다중인간(multi-man)'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들은 가족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깊게 한다.

정보사회와 관련된 두 번째 이론적 논의는 과거 사회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발전의 단계이나, 지금까지 발전해 온 자본주의 또는 근대성이 "연속적"으로 심화되었을 뿐이나 하는 단절론과 연속론에 관한 인식이다(Webster, 1997). 21세기는 20세기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주장¹⁾은 정보사회와 지식사회의 도전을 정면에서 민첩하게 준비하고 새로운 사회가 가져올 생활변화의 혁명적 변신에 대처할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정보사회를 인식하는 측면(김용학, 1999)은 정보화가 생활양식에 미친 점진적인 영향력을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연속론(점진론)과 단절론(혁신론)의 주장은 생활과학으로서 가정학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영향을 준다. 생활과학이 가정의 역할과 가족의 개념 정립을 근간으로 하면서 새로운 변

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그리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소비생활의 변화는 생활양식의 '대체'보다는 '보충, 지지, 추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생활과학의 지향점도 대체적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생활과학이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내에서 새롭고 점증적인 경향을 성립시켜 나가야 한다.

2. 생활과학의 학문적 발전과 고성장 직업 개발

오늘날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생활과학으로서 가정학의 학문적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가정학은 인간생태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그 환경과 가정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유영주 외 16인, 1997), 학문의 명칭이나 정체성을 '생활환경학', '가족생태학', '생활과학'에 기반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연결하는 모든 영역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분야임을 자처하면서, 연구영역이 지나치게 넓어 세분화·전문화되기 어렵고, 실천과학으로서 위상이 약하며,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유영주·강완숙, 1996; 홍준표, 1998)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현대적 학문 추세가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문만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신직업이나 유망직종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은 '입체인간', 'T자형 인간', '장파인간' 등으로 언급된다. 이는 입체를 통찰하여 다면적으로 생각하고 주변과 교감하는 인간, 전문성이 있으면서 폭넓은 지식을 함께 갖춘 'Generalized specialist'형 인간을 뜻한다(김기욱, 1999). 또한 정보사회의 정보화, 소비화, 개인화, 전문화, 서비스화 등 새로운 추세는 이러한 사회적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인을 요구한다(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1998),

<표 1> 2010년경 30대 예상 고성장 직업

예상 고성장 직업		
가사대행업	보모	도로, 건물 외장 공사업
가정(개인) 건강 상담역	여행대행업	심리분석가
컴퓨터 엔지니어	원자력과학(기술)자	호흡기질환 치료사
컴퓨터 과학자	간호사	제과, 제빵업
시스템 분석가	직업병 치료사	오락/레크리에이션 지도
물리(교정) 치료사	법률상담역	고급요리사
변호사 보조원	미용사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특수교육 교사	프로듀서/감독	간호보조사/병원용역업
의료보조원	배우/엔터테이너	부동산중개사
시설 수사원 및 경호원	민간방범/방재업	경영분석가

출처 :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1998), p.112

1)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관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변화에 초점을 두어 그 결과로 나타나는 단절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논의로는 벨(D. Bell)을 중심으로 한 탈산업주의론(post-industrialism), 토플러(A. Toffler)의 제 3물결 문명론(civilization of the third wave), 포스터(M. Poster)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피오르(M. Piore)와 세이블(C. Sabel)의 유연전문화론(flexible specialisation), 가스텔(M. Castells)의 정보적 발전양식론(informational mode of development) 등이 있다.

<표 2> 21세기 초 직종별 고성장 예상직업

6직종	직업
행정/관리/ 경영직 관련	회계사 및 감사역, 일반 및 최고관리자, 대부계 및 상담(고문)역, 경영분석가 및 컨설턴트, 마케팅 및 광고업, 레스토랑경영자
전문직 관련	배우, 감독, 프로듀서, 컴퓨터과학자, 시스템분석가, 직업병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간호사, 호흡기질환 치료사, 특수교육 교사
기술직 관련	치위생학자, 의료기기 관리자, 변호사 보조원, 원자력 관련 기술자
영업 및 판매직 관련	부동산 중개사 및 감정사, 소매상인, 여행대행업
서기/행정지원 직 관련	교회행정직, 일반사무원, 정보관리사무원, 비서, 교육보조원
서비스직 관련	미용(화장)사, 요리사, 경호원, 가사대행업, 의료보조원, 경찰, 민간수사요원, 사설교육교사(유치원 등)
생산/운수직 관련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원, 기계보수유지관리자, 블루칼라감독원, 트럭운전수

출처 : J. M. Farr(1995);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1998), p.113에서 개인용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요구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성되고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예상 고성장 직업들은 내용상 크게 5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컴퓨터 엔지니어, 컴퓨터 과학자, 시스템 분석가, 원자력 과학(기술)자 등과 같이 대부분 고도의 훈련과 높은 학력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변호사 보조원, 법률 상담역, 경영분석가 등 '실무적 서비스에 관련된 직업'으로, 이들 직업은 사회의 분화 및 전문화가 가속화되어 다양한 사회 영역이 복잡해짐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 번째는 가사 대행업, 사설 수사원(경호원), 보모, 건물 외장공 사업 등 '생활 서비스에 관련된 직업'으로, 개인 및 핵가족의 안전을 도모해 주거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가사·육아대행 등이 대표적이다. 네 번째는 '건강서비스 관련 직업'으로서 물리(교정)치료사, 의료보조원, 간호사, 직업병 치료사 등이 포함되며, 다섯 번째는 '오락, 취미 및 레저 관련 직업'으로서 여행대행업, 미용사, 배우/엔터테이너, 레크레이션 지도사, 고급 요리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표 1, 표 2 참조).

특히 종합학문으로서 생활과학은 다양한 세부 전공의 심화 및 분권화와 동시에 협력과 융합화를 통해 무한한 가치창출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김기욱, 1999),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세부 전공분야의 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독보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생활과학 영역의 새로운 직업군은 세부전공별로 매우 다양하다(표 3 참조). 예를 들어 의류학에서는 1) 섬유, 직물제조업자, 의류디자이너, 어패럴 제조업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고 소비자를 위한 전문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하는 인력, 2) 의복과 직물의 디자인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는 인력, 3) 큐레이터, 4) 상품코드의 표준화를 위한 의복의 치수, 규

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자, 5) 친환경제품 개발, 재활용이나 환경친화성평가에 관련된 직업, 6)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특수 의복 등 기능성을 고려하는 디자이너, 7)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복의 개발 및 문화재 보존에 관련된 직업 등이 필요하다.

식품영양학 전공자들은 기존의 식품 산업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1)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생산을 위한 소비자 기호분석 전문가, 2) 영양학과 식품학 지식을 조화시킨 기능성 식품 개발 전문가, 3) 단체 급식장에 한정되어 있던 영양사의 개념이 개인에게 적용되며 다양화된 영양상담사, 4) 아동, 노인 등 특수 영양을 요하는 집단을 위한 임상 영양사, 5) 식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와 영양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하는 식생활 정보사업자 등 새로운 식생활 관련 직종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소비자 및 인간발달 전공 영역에서는 1) 인간의 생애주기별 미래 변화에 적응을 돕는 각종 생활교육자, 2) 미래의 변화충격에 대비하는 생활상담사, 3) 공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리한 조건의 가족 및 소비자(예: 탈북자 가정, 장기 실직자 가정 등)의 재사회화를 담당하는 인력, 4) 각종 프로그램 구축자 및 웹 전문가, 5) 환경변화에 따라 건강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건강관리 전문가, 6) 고객의 전 생애에 걸친 재무설계 및 자금조달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전담하는 자산관리 전문가, 7)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전문가 등을 배출할 수 있다.

이처럼 세부전공의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하는 전문가는 물론, 생활과학 분야의 전공자는 정보처리의 전문지식을 기초적으로 갖추어, 생활정보 코디네이터와 같은 전문상담역이나 대행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가의 중시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여가 생활의 상담이나 고령자 생활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관련 연구에서 고찰된 생활과학 전공자의 예상직업

활동분야	연구자	고성장 예상직업
21세기 영양사의 활동분야	Dartois(1989); 이복희(1998)	임상영양사, 지역사회 및 보건 영양사, 식품관련업체종사자 집단급식교육 및 관리자 연구영양사
감성시대의 의류산업 전문분야	이혜주(1998)	디지털디자이너 사이버마켓터 캐릭터디자이너 큐레이터
소비자학 전공자가 진출가능한 신생직업	김기욱, 김난도, 이승신 (2001) *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 IP)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웹디자이너 캐릭터 MD (Character Merchandising Director) 게임시나리오 작가
소비자학 전공자가 진출가능한 성장직업	김기욱, 김난도, 이승신 (2001) *	텔레마케터(Telemarketer) 웹마스터(Webmaster) 증권중개인 시장조사분석가(마케팅리서치) 머천다이저(MD)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정생활 정보화 콘텐츠 구성과 생활과학 전공자의 전문직업을 개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생활과학 전공자들의 정보사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생활과학 전공자들이 정보사회에 기대하는 새로운 직업군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정생활 정보화 콘텐츠의 내용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이상의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단 계로 수행되었다.

우선, 연구문제 1과 2를 수행하기 위해 생활과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이화여자대학교(서울) 생활과학대학에서 개설한 “정보사회와 가정” 강좌를 수강한 150명이며, 이들이 응답한 설문지 147부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조사는 2000년 9월 21일-30일까지 해당 강좌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생활과학 전공자 학생들의 정보사회의 성격(낙관론과 비관론 또는 연속성과 단절성)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김용학(1999), 김원동(1999)의 연구를 토대로 질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계산하였다.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적 입장과 비관적 입장은 각각 7문항으로 구성되어,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 또는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관계에 대해 단절적인 입장과 연속적인 입장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질문되었으며,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단절론 또는 연속론을 내세우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alpha = .5392 \sim .6557$ 의 범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과학 전공자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직업군은 ‘정보사회의 유망 직업군’과 ‘고성장 예상 직업’ 그리고 ‘여성신직업군’으로 제안된 직업들과 생활과학영역 전문가들이 제안한 생활과학관련 전문직업들을 조사한 뒤, 이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그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희망직업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문제 3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를 검색하여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일반 정보이용자들의 가정생활정보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가정생활 정보의 내용을 디렉토리별로 분석하였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포털사이트인 야후(www.yahoo.co.kr)와 국내에서 검색사이트로 널리 사용되는 네이버(www.naver.com)를 선택하여, 이들 사이트에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경제생활, 자녀양육, 가족관계, 가족여가활동, 생활정보 등 관련용어를 검색했을 때 제시되는 디렉토리를 검색하여 분류하였다.

3.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낙관론. 정보화가 사회적 생산력과 효율성을 높여 기존 산업구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거나, 쌍방향적 의사소통 방식이 도입되며,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성역할을 경험하므로 다른 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남편과 아내의 성별 분업이 완화될 것인지, 정보기술 혁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것인지, 사이버 공간에서 공통의 신념과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될 것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비관론. 정보화가 오히려 다국적 자본과 기득계층,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한 이에게만 유리하여 새로운 권력관계를 낳는지, 사이버공간이 개별적이고 고립된 인간관계를 주도할 것인지, 전문직인들의 폐쇄적인 의사소통이나 정보의 독점이 많아질 것인지, 대면접촉의 부족으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나 훈련의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인지, 정보화가 실업률을 높이거나 가정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재택근무가 여성에게 가사와 노동의 이중부담을 줄 것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단절론. 정보사회는 단순반복적 노동이 사라지고 정신노동이 육체노동의 지위를 완전 대체하고, 20세기와 21세기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연속론. 정보사회는 정보기술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 중 한가지로써, 고도화된 자본주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IV. 생활과학 전공자의 정보화 실태

1. 정보사회 성격에 대한 이해

‘정보사회와 가정’ 교과목을 수강한 150명 중 생활과학 전공 학생들로 최종 분석에 사용된 학생수는 147명으로, 이들의 학년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해당 강좌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전공선택인 까닭에 1학년 학생들이 반 이상이며, 나머지 학생들의 숫자는 학년이 높을수록 적게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학년

(N=147)

구 분	빈도	백분율(%)
1학년	75	51.0
2학년	48	32.7
3학년	20	13.6
4학년	4	2.7

이들의 정보화 경험실태는 <표 5>와 같다. 정보화와 관련된 용어나 미래학 관련 서적 및 강좌 수강 경험, 그리고 학생들의 정보 네트워킹 관련 실태 등을 질문한 결과, 학생들의 정보화 경험 실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미래학 관련 과목을 수강했거나(5.4%) 재택수업 방식의 수업을 경험했던(15%) 학생들의 숫자도 매우 적었다. 전자주택, 홈오토메이션, 사이버스페이스 등 정보화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는 다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 역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의 용어에 대해 47.6%, 30.6%, 29.3%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미래학의 경험이나 용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결과는 학생들의 정보화에 대한 경험이나 의식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5> 생활과학 전공자의 정보화 경험실태

정보화 경험내용	경험있음	경험없음	기타
	N (%)	N (%)	
미래학 관련 과목 수강경험	8 (5.4)	138(93.9)	잘 모르겠다 1 (0.7)
전자주택의 용어 들어본 경험	56(38.1)	21(14.3)	잘 모르겠다 70(47.6)
홈 오토메이션의 구체적 사례 이해	68(46.3)	31(21.1)	잘 모르겠다 45(30.6) 그저 그렇다
인터넷 쇼핑, 전화구매, 우편주문 등 구매방법 선호 #	45(30.6)	21(14.3)	80(54.4)
사이버 스페이스 용어 들어본 경험 #	92(62.6)	11 (7.5)	잘 모르겠다 43(29.3)
재택수업 수강 경험 #	22(15.0)	117(79.6)	잘 모르겠다 7 (4.8)
개인적인 컴퓨터통신 장비 구비	31(21.1)	8 (5.4)	보통이다 107(72.8)
한달 용돈 대비 통신비용 비율이 30% 이상	27(18.4)	61(41.5)	일정하지 않다 59(40.1)
하루 컴퓨터 사용시간 1시간 이상	104(70.7)	9 (6.1)	일정하지 않다 34(23.1)

무응답으로 결측치가 발생함

그러나 컴퓨터나 네트워크 체계 구비에 대한 질문에서 8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통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개인적인 컴퓨터 통신장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지원체제인 하드웨어환경은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 시간과 관련이 깊게 나타나, 전체 70% 이상의 학생들이 하루 1시간 이상의 사용시

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매달 학생들의 개인통신 비용은 일정하지 않은 비율로 사용하는 경우가(40.1%) 많으며, 일정한 비율로 지출하더라도 한달 용돈과 비교해서 30%이상(18.4%) 지출하는 경우보다 30% 이하(41.5%) 지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통계청의 [2001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당 컴퓨터 사용시간이 11.2시간이고 주당 인터넷 이용시간이 8.5시간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연관된다. 즉 생활과학 전공 대학생들의 정보화 수준은 컴퓨터사용시간과 인터넷 이용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정보화 경험 수준과 불균형적으로 진행되어 결국 인터넷 중독 현상²⁾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표 6> 생활과학전공자의 정보사회 성격에 대한 이해

(N=147)

정보사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낙관론	18(2.57)	33(4.71)	25.54(3.65)	2.822
비관론	18(2.57)	34(4.86)	25.67(3.67)	3.277
단절론	3(1.5)	10(5.0)	7.08(3.54)	1.402
연속론	4(2.0)	10(5.0)	7.12(3.56)	1.110

* 괄호안은 평균값을 분할수로 나눈 값이다.

생활과학 전공 학생들이 정보화 사회를 낙관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비관적으로 이해하는지, 그리고 산업사회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지 등과 관련된 문항³⁾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다. 여기서 생활과학 전공자들이 정보사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낙관론과 비관론의 점수에서 거의 유사하게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양면적인 입장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보다는 사회변화에 소극적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서 조사대상 학생들이 정보사회에 대한 경험실태에서도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경험하기보다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연관된다. 또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도 연속론과 단절론 사이에서 비슷한 정도의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학생들은 개념적으로도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즉 생활과학 전공 학생들은 정보사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

2) 2002년 정보통신부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인터넷중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은 약 23%나 된다(한국일보, 2003. 3. 9).

3)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대로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과 비관적인 입장은 각각 7문항으로 질문하고,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관계를 단절적 또는 연속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각각 2문항으로 질문하여 이를 합하여 각각 낙관론, 비관론, 단절론, 연속론이라고 하였다.

며 정보사회의 변화를 예비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정보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정보의 생산·유통·분배, 의사소통방식, 성별역할분담, 공동체 측면에서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생활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

생활과학 전공자 학생들의 전공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즉 ‘관련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학생들의 응답빈도는 의류디자이너(99.3%), 전통의복 전문가(72.8%), 영양상담사(72.8%), 소비자상담사(66%)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류디자이너나 영양상담사, 소비자상담사와 같은 직업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큐레이터(11.6%), 식생활 정보사업자(16.3%), 가정복지사(19%) 등의 신생직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생 직업에 대한 낮은 이해는 생활과학 교과과정의 수정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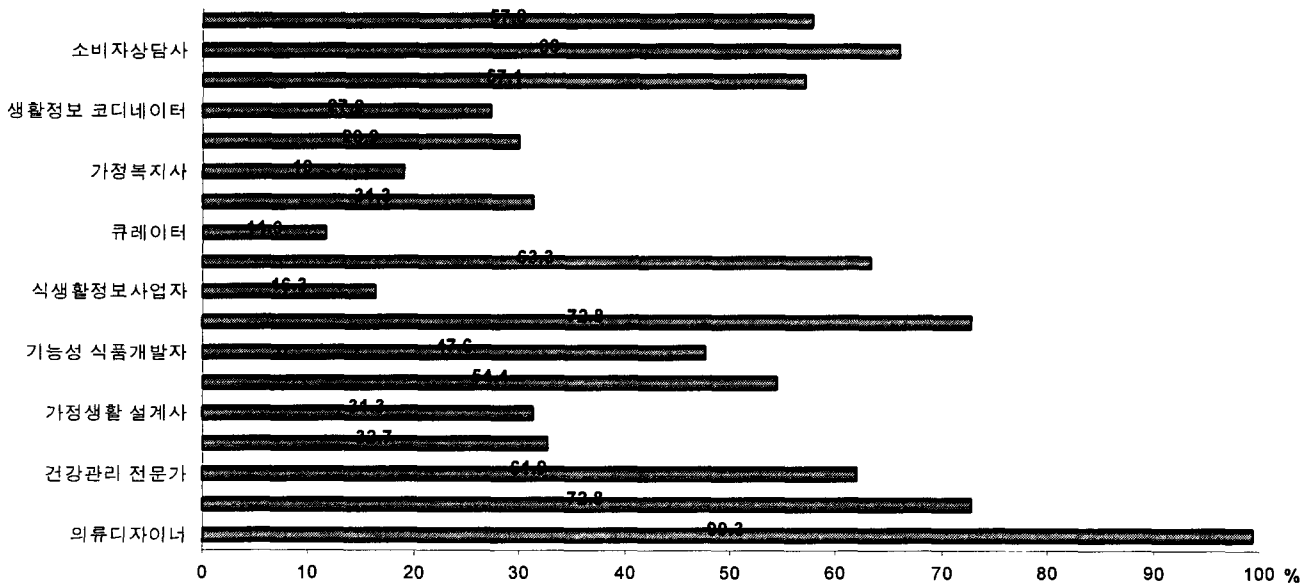
생활과학 전공자들의 희망직종으로는 의류디자이너나 소비자기호분석전문가, 재무상담사, 기능성 식품개발전문가, 임상영양사, 소비자상담사, 어패럴 제조업자, 웹전문가, 식생활정보사업자, 생활정보 코디네이터, 가정복지사, 가정생활설계사, 가정생활관리사 순으로 제시되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희망직종들은 앞서 언급한 고성장 예상직업군 가운데 ‘실무적 서비스에 관련된 직업’이나 ‘생활서비스에 관련된 직업’에 속한다. 그에 비해 특수목적디자이너, 큐레이터와 같은 ‘고도의 훈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나 건강관리전문가와 같은 ‘건강 서비스 관

련 직업’ 등으로의 진출 의사는 거의 없었다. 이에 생활과학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문직업에 대한 강화교육과 함께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적은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개발과 소개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희망직종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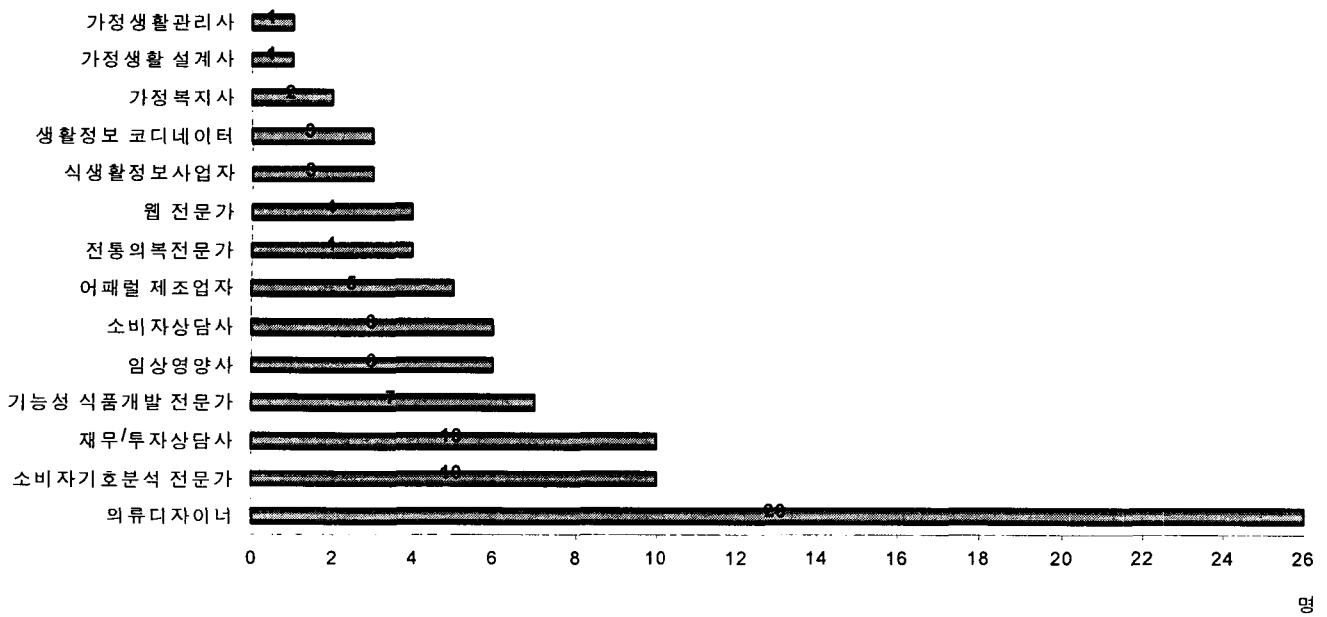
<표 7>은 희망직업을 밝힌 학생들(88명) 가운데 응답이 가장 적은 가정생활관리사(1명), 가정생활 설계사(1명), 가정복지사(2명) 직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그림 2 참조)의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적 또는 비관적 입장, 단절론과 연속론에 대한 이해수준을 살펴본 것이다. 미래 가능한 희망직종 가운데 의류디자이너, 어패럴제조업, 전통의복전문가, 소비자기호분석전문가, 재무/투자상담사, 웹전문가, 기능성 식품개발전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정보사회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무/투자상담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정보사회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정보사회는 오히려 다국적 자본과 기득계층,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한 이들에게만 유리하며, 사이버 공간은 개별적이고 고립된 인간관계로 구성될 것이고, 전문지식인들의 패쇄적인 의사소통이나 정보의 독점이 많아지며, 대면접촉의 부족으로 사회적 관계형성의 기회가 박탈당하며, 실업률이 높아지고, 여성에게는 이중노동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식생활정보사업자는 오히려 정보화가 기존 산업구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이 도입되어 사이버공간에서 공동체 활



<그림 1> 전공관련 전문직업에 대한 이해정도 (중복응답 가능)

4) 연구방법의 용어정의에서 낙관론과 비관론, 단절론과 연속론의 내용을 참고할 것



<그림 2> 전공관련 희망 직종

동이나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노동기회의 확대와 성별분업의 완화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데 더 많이 공감하고 있다. 이는 재무/투자상담사라는 직종이 산업사회의 자본력을 다루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이라는 점과 식생활정보사업자는 새로운 정보력을 요구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표 7> 희망직종별 학생들의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수준

희망직종	정보사회이해	이해수준			
		낙관론	비관론	단절론	연속론
의류디자이너	평균	24.91	26.12	6.86	7.05
	표준편차	2.766	3.202	1.342	1.301
어패럴제조업	평균	26.60	27.60	7.40	7.40
	표준편차	2.915	2.074	.894	1.140
전통의복전문가	평균	24.75	27.50	7.50	7.25
	표준편차	2.872	3.697	2.082	.500
소비자호분석전문가	평균	23.30	25.90	7.20	6.80
	표준편차	1.829	2.923	1.619	.919
재무/투자상담사	평균	23.40	28.10	6.90	7.90
	표준편차	2.716	3.446	.876	.994
소비자상담사	평균	23.83	21.17	6.67	7.00
	표준편차	1.941	1.722	1.633	.894
웹전문가	평균	23.00	25.25	7.50	6.75
	표준편차	2.582	4.573	.577	.500
기능성식품개발전문가	평균	24.86	25.57	7.29	7.43
	표준편차	2.854	3.599	.951	.535
임상영양사	평균	24.67	24.00	9.33	7.00
	표준편차	1.366	3.225	.516	.300
식생활정보사업자	평균	26.33	20.33	5.67	7.33
	표준편차	1.155	.577	1.155	1.155

한편, 대부분의 학생들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대해 연속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들이 정보사회나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기존 사회를 보충하고 지지하는 입장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단 임상영양사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점수의 단절론의 이해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임상영양사라는 직업이 정보사회에서 의학기술의 혁신적인 발달과 새로운 임상적인 사례(예를 들어 인간복제, 유전공학의 발달 등)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V. 가정생활 정보화 콘텐츠 분석

가정생활 정보는 각종 환경의 자극에서 연계되는 가정생활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말하며, 가족원이 그것을 인지하고 선택하며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가정생활의 질이 결정되는 인적자원으로 정의된다(김수미, 1999). 가정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습득하는 방법은 일반적 정보 습득 과정과 유사하다. 즉 구전을 통한 전달·습득방법, 인쇄매체를 통한 대량전달 방법, 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전파매체를 통한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와 전기통신이 결합됨으로써 생겨난 PC통신과 인터넷이라는 수단은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및 보관이 편리해지면서 시간과 거리의 차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정보통신 수단만 갖추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되었다(오명, 1987).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정보지원환경의 기술개발과 이와 부응할 소프트웨어 환경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즉 정보지원환경의 하드웨어 환경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응

할 정도의 소프트웨어 환경, 즉 콘텐츠의 성장은 지체되고 있다. 더욱이 가정생활에 대해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가정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몇몇 디지털 관련 사이트들도 대개 교양 지식이나 기술적 정보 제공 및 국부적 관심영역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가정들은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마땅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 현황은 <표 8>과 같다.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주부를 위한 일반적인 가정생활 관련 정보, 엄마를 위한 양육정보, 주부들의 부업 정보, 요리관련 정보, 살림 지혜 공유 정보, 부부간의 평등한 노동분담과 주부의 가정에 대한 기여정도 정보, 집안 인테리어 및 패션정보, 문화행사 및 여가생활정보 등이다. 이는 학문적 영역의 생활과학으로서 가정학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세부전공영역과 연관된다. 즉 생활과학으로서 가정학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경제생활, 자녀양육, 가족관계, 여가활동 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은 이러한 정보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보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 원천은 부족하다. 즉 가정생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개인 및 가족원 모두의 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요구된다.

또한 정보제공 원천으로서 사이트 개설이라는 요구 뿐 아니라 정보이용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한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정보이용자가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가정생활정보를 하나의 디렉토리로 구성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포털 사이트인 야후 코리아(www.yahoo.co.kr)와 네이버(www.naver.com)에서 가정생활정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디렉토리를 검색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예를들어 의생활 영역에서 '의복'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와 경제, 예술, 디자인 등의 디렉토리에서 검색해야 하며, 가족관계 영역에서 '가족'에 대한 검색은 애니메이션이나 사회단체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생활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가 하나의 커다란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그 안에서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지 못하다는 점은 정보이용자에게 정보검색에 대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정보를 단편적으로 제공하게 될 뿐이다. 결국, 전체론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검색하는 포털사이트의 검색 체계도 '가정생활정보'라는 하나의 디렉토리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활과학 분야에서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관련 전문직종 개발과 가정생활 정보화 콘텐츠 구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생활과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화 실태 및 직업개발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가정생활 정보를 검색할 때 용이

<표 8> 디지털 가정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사이트

사이트 명칭	사이트 주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사이트 명칭	사이트 주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주부 라이프	www.jubulife.pe.kr	알뜰생활정보, 문화행사 안내	홈리빙	www.homeliving.co.kr	집안 인테리어, DIY, 생활아이디어, 주부 라이프 스타일, 요리강좌
홈노트	www.homenote.co.kr	가계부, 집안행사관리, 육아정보, 요리관련 정보	넷시클럽	www.netssyclub.co.kr	여가생활, 의식주, 교육, 쇼핑정보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	www.jubu21.or.kr	가정생활관련 정보, 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미즈 플러스	www.msplus.co.kr	사랑과 성, 엄마와 아기, 건강과 다이어트, 패션, 요리, 취미, 생활정보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모임	www.goodmom.co.kr	자녀교육, 좋은책 모음, 교육정보	사이버 주부대학	www.cyberjubu.com	주부대상 인터넷 문화센터, 컴퓨터교육, 자격증 강좌 및 교양, 취업준비과정 개설
아줌마 닷컴	www.azoomma.com	주부, 여성을 위한 생활정보	아이주부	www.ijubu.com	주부 전문정보, 자녀교육, 가계부, 가사노동 계산, 가족관계 상담
주부나라	www.jubu.imic.co.kr	인테리어, 홈쇼핑, 건강생활용품 소개	아이지아	www.izia.com	신종직업, 부업, 주부 컴퓨터 교육, 생활강좌
주부웹	www.jubuweb.com	자녀교육, 주부대학, 성과 건강, 요리 등	아줌마 파워	www.ajumma.co.kr	주부여성 포털, 노래배우기, 육아일기, 명화와 클래식
생활의 지혜	www.mysense.pe.kr	생활속의 지혜, 의복과 세탁, 음식과 요리, 건강과 미용, 재활용, 자녀교육법	주부세이	www.jubusay.com	연령별, 지역별, 취미별 주부 커뮤니티, 쇼핑
워킹맘	www.workingmom.pe.kr	직장엄마의 아이키우기, 임신·육아·교육 정보	주부정보	www.jubuinfo.com	자녀교육, 문화생활, 식생활, 건강, 취업 및 부업
주부21넷	www.jubu21.net	주부 정보화 교육, 부업, 생활상식 제공	헬로우 미씨	www.hellomissy.com	20-30대 여성이나 주부층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제안
우먼라인	www.womenline.com	주부나 어머니를 위한 인터넷 교육, 알뜰정보 제공, 건강 및 테레크 상담	홈노트	www.homenote.co.kr	주부 전용 인터넷, 가계부, 집안행사관리, 살림 지혜 공유, 주부관심 정보

한 체계적인 검색 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생활과학 전공학생들의 정보화 경험실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컴퓨터 사용시간에 있어서 두드러졌으며, 정보사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낙관적-비관적 또는 단절적-연속적인 선상에서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정보사회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매우 소극적이고 수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생활과학 전공자들은 신생 직업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았으며, 대부분 졸업후 희망하는 직업들로는 유망직업으로 조사된 '실무적 서비스에 관련된 직업'이나 '생활서비스에 관련된 직업'에 속한 반면, '고도의 훈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 '건강 서비스 관련 직업' 등에 속하는 직업들은 없었다.

셋째, 생활과학 전공자들은 희망하는 전공영역에 따라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재무/투자상담사, 식생활정보사업자, 임상영양사 등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

들의 정보사회에 대한 입장은 그 직업적 성격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검색엔진을 분석한 결과, 정보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원천이 부족하였다. 특히 정보이용자들이 관련정보를 검색할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생활정보'로 분류된 체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생활과학이라는 학문영역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과학 전공 학생들의 정보화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과과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식하여, 그 직업적 성격을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상영양사와 관련된 교과과정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다루며, 의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과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전공관련 유망직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과과

<표 9> 검색엔진에서 분류된 가정생활정보 디렉토리

가정생활영역	검색어	야후코리아 (www.yahoo.co.kr)	네이버 (www.naver.com)
의생활	의복	▷비즈니스와 경제>기업간 거래 > 산업용품 > 의류, 의복 ▷예술 > 미술 > 디자인 > 패션, 미용 ▷지역정보 > 국가별 > 일본 > 예술 > 미술 > 디자인 > 패션, 미용 ▷한국의 미. 산업용품(의류, 의복)	▷비즈니스, 경제 > 기업 > 의류, 패션잡화
식생활	음식	▷사회와 문화 > 식품, 음식 ▷지역정보 > 국가별 > 사회와 문화 > 식품, 음식	▷가정, 여성 > 음식, 요리 > 종류별 음식 ▷비즈니스, 경제 > 기업 > 음식, 식품
	건강	▷건강과 의학 > 여성(남성)의 건강 ▷뉴스와 미디어 > 라디오 > 방송 프로그램 > 건강 ▷자연과학 > 생물학 > 동물학 > 동물, 곤충, 애완동물 > 애완동물 > 건강	▷건강, 의학 > 어린이 건강 ▷쇼핑 > 건강, 의학
주생활	주택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 > 비즈니스와 쇼핑 > 부동산 > 부동산중개, 분양 > 주택, 아파트	▷가정, 여성 > 주택, 부동산 ▷교육, 참고자료 > 시험, 자격증 > 부동산, 주택 ▷비즈니스, 경제 > 기업 > 건설 > 주거용, 주택
	실내장식(인테리어)	▷ 예술 > 미술 > 디자인 > 인테리어 디자인	▷ 엔터테인먼트, 예술 > 디자인 > 인테리어디자인
경제생활	재테크(금융정보)	▷비즈니스와 경제 > 부동산 > 재테크 ▷뉴스와 미디어 > 텔레비전 > 제작, 편성 > TV 프로그램 > 교양, 정보 > 경제, 재테크 ▷비즈니스와 경제 > 투자, 금융, 재테크	▷비즈니스, 경제 > 투자, 금융, 재테크 ▷뉴스, 미디어 > 방송 > 텔레비전 > TV 프로그램 > 경제, 재테크
	소비자(구매정보)	▷비즈니스와 경제 > 소비자 경제 > 소비자 의견 ▷비즈니스와 경제 > 투자, 금융, 재테크 > 금융 > 소비자 신용	▷쇼핑 > 소비자 평가 ▷비즈니스, 경제 > 소비자 경제 ▷사회, 문화 > 이슈, 주장 > 소비자 ▷사회, 문화 > 기관, 단체 > 사회단체 > 소비자
자녀양육	(자녀)양육	▷사회와 문화 > 가족, 가정 > 가정교육, 양육 > 어린이 교육, 자녀교육	▷가정, 여성 > 육아
가족관계	가족	▷엔터테인먼트 > 만화, 애니메이션 > 소개, 리뷰 > 테마별 만화 소개 > 가족 ▷사회와 문화 > 종교와 영성 > 종교별 > 그리스도교 > 기관, 단체 > 가족	▷가정, 여성 > 가족 ▷사회, 문화 > 정부 > 행정부 > 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가족여가활동	(가족)여가	▷여가생활과 스포츠 > 여행, 관광 > (여행담) > 가족여행	▷레크리에이션 > 여행, 관광 ▷비즈니스, 경제 > 기업 > 여행, 관광 ▷쇼핑 > 여행, 관광
	문화(생활)	▷사회와 문화 > 장애 > 여가생활과 스포츠 ▷ 뉴스와 미디어 > 신문 > 동아일보 > 문화생활	▷사회, 문화 > 문화, 문명(사이버 문화)
생활	생활정보	▷비즈니스와 경제 > 생활광고 ▷여가생활과 스포츠 > 야외여가활동, 레저 > 종합정보 ▷비즈니스와 경제 > 쇼핑과 서비스 > 생활용품 > LG 생활건강 > 제품정보	▷가정, 여성 > 생활정보

정에서 신생직업에 대한 소개와 관련된 학습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교과과정내에 미래사회에 적합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고도의 훈련과정이나 세분화된 서비스 관련 직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종합학문과 실천학문으로서 생활과학의 성격은 무한한 관련 직업을 개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직업개발을 각 전공영역에서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적극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길러낼 필요가 강조된다. 그리고 기존의 관련 사이트를 통합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학문적인 접근성과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개발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실제로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는 학습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생활과학 전공자들의 정보화 실태와 직업적 요구에 대한 실태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실태분석이 다른 영향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단계까지는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발전시킨 후에 비교를 통한 연구에서 그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이와 관련된 학문적 관심과 연구의 지속성을 제안한다.

- 접수일 : 2003년 3월 15일
- 심사일 : 2003년 3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6월 05일

[참고문헌]

김경동(1999). 기술혁신과 사회변동: 정보사회의 생성전개에 대한 이해. 정보사회학회(편). **정보사회의 전망(25-60)**. 서울:나남출판사.

김기욱(1999). 정보사회와 생활과학: 도전과 기회. **정보화사회와 생활과학의 전망-대한가정학회 52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9-37.

김기욱·김난도·이승신(2001). **소비자정보론**. 서울:시그마프레스

김난도(1998). 21세기 생활과학의 두 가능성에 관한 시론: 소비자학과 가정관리학의 외연확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 23, 1-10.

김수미(1999). 도시주부의 생활정보활용 및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용학(1999). 정보사회의 성격: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립. 정보사회학회(편). **정보사회의 전망(83-102)**. 서울:나남출판사.

김원동(1999). 정보사회에 관한 이론적 전망. 정보사회학회(편). **정보사회의 전망(61-82)**. 서울:나남출판사.

신충식(1990). **과학기술과 삶의 질**. 21세기 위원회.

안병철(1997). **사회변동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오 명(1987). 정보화 사회와 여성발전. **아세아 여성연구**, 26, 1-11.

유영주·강완석(1996).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시론1. **대한가정학회지**, 34(3), 1-8.

유영주 외 16인(1998). **인간과 생활환경**. 서울:효일출판사.

조정문(1997). 정보사회에서의 가족 및 세대 공동체. **사회조사연구**, 12(1), 45-70.

조 은(1999). 정보사회와 가족생활. 정보사회학회(편). **정보사회의 전망(275-296)**. 서울:나남출판사.

최동수(2002).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법문사.

통계청(2002). **2001년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정보문화센터(1994). **정보화 실태 및 정보사회 수용도 조사보고서**. 연구보고 94-01.

함인희(2000). 정보화와 가족생활의 변화. **여성연구**, 15, 59-80.

허 형(1998). 정보화와 생활과학, 그리고 교육의 개혁. **정보화 시대의 생활과학(중앙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1-23.

홍준표(1998). Multimedia와 Internet이 만들어 갈 새로운 인간생활 환경에의 도전. **정보화 시대의 생활과학(중앙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24-32.

Giddens, A. 한상진·박찬옥 역(1998). **제3의 길**. 서울:생각의 나무.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1998). **정보혁명 생활혁명 의식혁명**. 백산서당.

Toffler, A. 유재천 역(1982). **제3의 물결**. 서울:주우.

Webster, F. 조동기 역(1997). **정보사회이론**. 서울:나남.

머니투데이 2002. 7.11 “국내 10가구 중 6가구 컴퓨터 보유”. <http://news.naver.com>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3). **인터넷통계**. <http://sts.nic.or.kr/statlist.html>

한국일보. 2003. 3. 9. [인터넷] “인터넷중독 당사자녀를 노린다” <http://news.naver.com>

야후코리아. www.yahoo.co.kr

네이버. www.naver.com